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8호 【루게 제23365호】 주체100(2011)년 2월 17일(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경축연회를 차리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69돐을 경축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저녁 연회를 차리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연회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변명을 위해 한몸바쳐 투쟁하고있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연회에는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정은동지, 리영호동지, 김영춘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김경희동지, 강석주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진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태종수동지, 문경덕동지, 주구창동지, 우동측동지, 김창섭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경욱동지, 김원홍동지, 정명도동지, 윤정린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가 연설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승리의 기치이며 우리의 운명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력사의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며 백승을 떨쳐온 잊을수 없는 영광의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와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변명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인 수리아아랍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령도자 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각하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1년 2월 13일 디마스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04호 주체100(2011)년 2월 16일

### CNC 공구자동흐름선에 김일성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최첨단과학기술을 높이 받들고 운산공구공장의 로동계급과 련히계관리의 기술자들이 두뇌전, 기술전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에 빛내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기계공업이 요구하는 공구들을 원만히 생산공급할 수 있게 새로 개발한 최상급의 CNC공구자동흐름선에 김일성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지난 10년동안 어른혁명사적지 200여만명 참관  
민족해방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리있는 어른혁명사적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았다. 참관자들은 해마다 늘어나 그 수는 지난 10년동안 200여만명에 달한다.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천만군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이곳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도,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른혁명사적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천재적인 지략, 독창적인 령군술과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전하는 력사의 땅이다. 혁명사적비밀에서 종합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주체 51(1962)년 8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군사야영기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군사활동을 벌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었던 별실과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보여주신 실탄사격장, 백두명장의 기개와 당백이 어린 평군봉 등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분해결합하신 중기관총을 비롯하여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범으로 무장하도록 아영생활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사실을 전하는 사적물들과 사적자료

### 《김일성전집》 제92권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년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총서인 《김일성전집》 제92권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전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81(199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 결론, 담화 등 52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80돐과 조선인민군창건 60돐이 되는 해를 뜻깊게 빛내기 위해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고있던 격동적인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국내외의 정치경제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분석평가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통일, 온 세계의 자주화 위업실현을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발췌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항일투사들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에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집대성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들에서 탁월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군사전략가이시며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군대, 국가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령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로작들에는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에 대한 내용이 밝혀져있으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계속 강화하며 전당원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과업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로작들에는 전역, 석탄공업, 철도운수의 발전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공업과 농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함에 대한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 로작 《함경북도당위원회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자연지리조건을 잘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여야 한다》에는 지방의 당사업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반영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자》, 《북과 남의 녀성들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우리 당의 공명정대하고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에 대하여 다시금

치라갈데 대하여 명시하시였다. 로작에는 우리 당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주체사상을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왔으며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단결되어 자주적인 주체를 이룩하는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는 독창적인 리론이 밝혀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교차생산조직을 잘 하며 철도증량화를 다그칠데 대하여》, 《다음해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몇가지 과업》 등의 로작들에서 당의 리용적인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로작들에는 전역, 석탄공업, 철도운수의 발전을 확고히 앞세우고 경공업과 농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함에 대한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 로작 《함경북도당위원회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자연지리조건을 잘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여야 한다》에는 지방의 당사업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반영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자》, 《북과 남의 녀성들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우리 당의 공명정대하고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에 대하여 다시금

밝히고 조국통일운동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실천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총련은 주체사상의 귀중한 결실이다》, 《총련사업에 대하여》 등의 로작들에는 총련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제일동로들속에서 애국사업을 광범히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로작 《세계평화수뇌자리사회 대표단과 한 담화》, 《인도네시아 《메디아 인도네시아》 신문사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등에는 우리 혁명의 국제적위업을 강화하고 반제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술적방침들이 명시되어 있다. 전집에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과 전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높이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늘일데 대한 시책에 관한 로작들도 편집되어 있다. 이밖에도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관리하며 태연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완벽 한 해답을 주는 사상리론들이 집대성된 로작들이 전집에 들어 있다. 《김일성전집》(92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커다란 력사적의의와 건리의 정당성, 생활력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사상적무기, 전투적기치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연구도입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고조의 승리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달려들어야 전체 인민의 정신력이 최고인 열도로 폭발할수 있고 이런 신념과 의지로 돌진해야 어디서나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될수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거기에 해결하려는 당의 뜻을 받들고 미량원소비료의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게 우리 식으로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연구개발하여 도입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금강약물연구집단에서 개발한 새로운 비료는 우리 나라에 많이 매장되어있는 금강약물에서 수습가치의 미량원소와 회로원소들을 추출하고 여기에 담철, 오리털을 비롯한 폐단백에서 얻은 복합아미노산을 화학결합시켜 만들었다. 과학자들은 이 비료를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평양시를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협동농장들에 도입하여 그의 경제효과를 증명하였다. 도입결과에 의하면 알곡작물의 경우 새로운 비료를 주지 않은 논과 밭에 비하여 정보당 110~120%이상, 평균 0.5t의 수확을 안전하게 더 했으며 남새작물인 경우에도 정보당 120~140%이상 수확고를 높였다. 교수이며 박사인 박영철, 실장 채규실, 연구사인 김철로, 차정철, 리성수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금강약물과 폐단백으로부터의 미량원소의 추출조건과 복합아미노산의 제조조건을 확충하였으며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의 합리적인 제조조건과 분석방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새 비료의 작물별사용방법도 세웠다. 이 나날 지칠, 망영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떠맡아주면서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는 소독효과가 좋으므로 씨앗소독제로 쓸수 있으며 시비효과가 높고 작물의 질을 개선하는 등 그 경제효과가 크다. 여러 협동농장들에서는 새로운 비료를 리용하여 종전보다 씨앗의 싹트는률을 평균 7%나 높였고 싹트는 기일을 훨씬 앞당겼다. 또한 뿌리발육을 촉진시키고 식물호르몬의 활성화와 병록소함량을 높여주는 이 비료는 모마를 병, 버벌병 등 여러가지 병을 막는데서 효과가 매우 좋았다. 현재 평안남도과 평안북도, 황해남도과 남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새로운 비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본사지자 오철훈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각하

각하  
나는 각하의 탄생일인 2월 16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면서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이 기회에 각하께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하와 함께 노력할 나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브델아지즈 부메플리까**  
2011년 1월 27일 알자자르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각하

나는 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나 자신과 레바논인민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께서 행복하시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에게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미셀 슐레이만**  
2011년 2월 6일 베이루트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각하

당신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께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각하께서 기초를 마련해주시고 발전시켜주신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에 언제나 관심을 돌려주고계시는데 대하여 사의를 포함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몽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치, 무역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문제에서 적극 협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는것을 확인하면서 이 사업에서 존경하는 각하와 실질적인 협조를 진행할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발전,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몽골 대통령**  
**싸히아긴 엘베그도르쥬**  
2011년 2월 11일 울란바타르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각하

각하  
나는 행복한 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말디브제도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뜨거운 인사와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되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말디브제도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나쉬드**  
2011년 2월 15일 말레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

나는 당신의 탄생일(1942년 2월 16일-2011년 2월 16일)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동지와 그리고 오늘은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하고 확고한 령도밑에 형성적조선인민이 사회주의길을 따라 조국보위와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형제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과 국가, 인민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확고히 견지하여 온갖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사업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로선에 따라 조선의 평화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평화, 친선, 협조사업에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 당과 국가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계속 더욱 강화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숭고한 위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중앙국방 및 안전위원회 위원장**  
**쭌말리 싸이나손**  
2011년 2월 15일 비엔티안

##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드립니다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쳐 내달리는 선군의 내 나라, 꿈결에도 그림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해외동포측단, 대표단, 방문단 전체 성원들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늘도 축복을 내려 정일봉기속에 신비로운 설경을 펼쳐 드렸던 력사의 2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찬란히 솟아오르신것은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을 기약하는 민족의 대통운이었으며 인류사주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세계사적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조국이 오늘처럼 동방일각에 우뚝 솟아 강성번영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있는것도 우리 동포들이 이력만리에서도 가슴뜨겁고 멋있게 살아가고있는것도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받들어모시였기에문입니다.

절세의 위인을 모신 궁지와 행복감으로 가슴부풀어오르는 이 시각 저희들은 자주시대의 조종간을 여세게 틀어쥐고 수시성상 조국과 인류앞에 쌓아올리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봅니다.  
일제기 탐관상주에서 조선을 빛내어갈 력사적언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혁명적정치의실력으로 우리 조국을 수령과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그 어떤 강적도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 최첨단을 통과하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일떠세우주셨습니다.  
조강다강혁명전지지도로 낱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따라 세인을 경탄시키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CNC화의 열풍속에 조국명 방방곡곡에서 인민의 세기적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번들이 다채단으로 일어나고있습니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적의 백두산총대로 계국주의련합세력의 횡포한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편전련승을 떨치시어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시였으며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우리 조국을 수령과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그 어떤 강적도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 최첨단을 통과하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일떠세우주셨습니다.  
조강다강혁명전지지도로 낱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따라 세인을 경탄시키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CNC화의 열풍속에 조국명 방방곡곡에서 인민의 세기적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번들이 다채단으로 일어나고있습니다.

조국땅에서 울려오는 비약의 소식들에 접할 때마다 저희들은 우리 조국과 민족을 나날이 더욱 위대하게 빛내여주시는 아버지장군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에 넘쳐 평양방향을 우러러 삼가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 또 올리고있습니다.  
애국애족의 화신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철칙의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높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6. 15의 시대적호를 기억하고 대결과 전쟁사동에 미쳐달라지는 미제와 남조선 보수세력의 광란적인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에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시며 통일의 진한적극을 열어나가고 계십니다.  
정령 비범한 천품과 탁월한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민족과 인류의 자주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진실적응성이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최대의 특건이며 무상의 행복입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산악같이 일떠선 조국의 천만군민이 올해에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유래없는 목표를 내세우고 최후공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모습에서 저희들은 머지않아 펼쳐지게 될 사회주의무궁도원을 그려보았으며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얻고있습니다.

참으로 력사의 2월이 있어 선군조선의 빛나는 오늘이 있고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어 온 겨레가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갈 통일강성대국의 새봄이 태동하고있음을 굳게 확신하고있는 우리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의 운명이고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시라는 철리, 장군님만 계시면 강성대국건설도 조국통일도 반드시 이룩된다는 필승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몸은 비록 멀리 이역에 있어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하는 처럼 믿고 따르며 팔까지 받들어나가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광범한 동포들속에 자기 수령, 자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깊이 심어주어 동포조직들을 애국애족의 조직으로 튼튼히 꾸리며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에 편대련합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넘치는 애국열의를 총폭발시켜 어머니조국의 경제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겠습니다.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년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게 될 영광의 해 2012년 이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올수록 우리 해외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선군조선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입니다.

조국의 통일번영과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끊임없는 강화 발전을 위하여, 7천만 우리 겨레가 세세년년 복락을 누리며 통일강성대국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육체 건강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방문단성원일동**  
주제 100 (2011)년 2월 16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2. 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을 만났다

【평양 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6일 평양대극장에서 총련 금강산가극단 단장인 리봉수를 단장으로 하는 2. 16 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방 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프랑쑤아 보지제 양구본다각하**  
나는 얼마전 귀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신이 인민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속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중책을 다시 지니게 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년 2월 15일 평양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이탈리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제르시오 메르구리 주조 이탈리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5일 민주세

## 헌신으로 수놓아진 뜻깊은 2월명절의 하루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이 이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호모심이 강산에 더욱 차민치는 속에 온 나라 인민은 2월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올해를 또다시 인민생활향상의 해로 정해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만복을 꽃피워주시는 아버지장군님, 지금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뜻깊은 2월의 명절날에도 명사들과 인민들을 찾으시어 크나큰 온정을 베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이 뜨겁게 어려와 한없는 격정을 감지 못하고있다.  
이렇게 되어 경애하는 그의 사랑이 어린 신물을 실은 자동차가 지체없이 눈보라속을 달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동차가 떠난 후에야 만사정을 놓으시고 일군들과 함께 저녁상에 마주앉으셨다. 그런데 일군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생신날 저녁상이었지만 너무나 소박한 감자음식 몇가지뿐이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오늘도 나는 군인들과 하루를 보냈다고, 군인들의 우리들을 위해 보내는것이 끝 나의

이 오늘같이 추운 날에 혼편을 하려고 수고가 많았는대 자식에게 그만 그들과 빈손으로 헤어졌다고 아쉬워하시었다.  
그를 우러르는 일군의 심장은 세차게 달아올랐다.  
뜻깊은 탄생일에 바치신 자신의 로고는 생각지 않았고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수고를 먼저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고결한 품도에 더욱 매혹되었던것이다. 잠시 후 그이께서는 격정에 찌터있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이레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기념으로 될 선물을 보내주자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경애하는 그의 사랑이 어린 신물을 실은 자동차가 지체없이 눈보라속을 달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동차가 떠난 후에야 만사정을 놓으시고 일군들과 함께 저녁상에 마주앉으셨다. 그런데 일군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생신날 저녁상이었지만 너무나 소박한 감자음식 몇가지뿐이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오늘도 나는 군인들과 하루를 보냈다고, 군인들의 우리들을 위해 보내는것이 끝 나의

##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꽃피우시며

민족의 향취 넘쳐나는 내 나라!  
이는 정력적인 령도로 민족적 전통을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내 조국의 참모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의 고유하고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고 물으시었다.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이 바로 정월대보름날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민족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은

속천군 검산리당위원회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는 해설을 마치면서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자각을 안고 뜻깊은 올해에 압록강중산도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을 더욱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에서 나간 리당위원회에서는 작업의 철학을 리용하여 당보에 실린 선군혁명명도의 위대성을 가지고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로동봉사원 원기석



# 선군조선의 참된 아들딸들로 억세계 준비하자

##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가 16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 》, 《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 》, 《 모두다 최우등생이 되어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 》 등의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또한 《 경축 2.16. 》, 《 충성동 》, 《 효자동 》이라는 글발을 드러온 기구들이 떠있었다.

대회에는 각 도소년단체대표들과 평양시내 소년단원들이 참가하였다.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최봉해동지, 문경덕동지와

김용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당, 청년동맹일군들, 전쟁로병, 동료자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대회는 《 김정일장군의 노래 》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경축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백두의 정기를 지니시고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력사의 2월이 있어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복을 누리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전진하여 올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으며 후대들의 행복 한 배일을 위하여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영광을 드려왔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아버지장군님의 품속에서 우리 소년단원들은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아버지장군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 열심히 배우고 소년단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선군조선의 선장에 떼매고나갈 역군으로 준비할것을 당부하였다.

대회는 《 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 》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다. 가공직장 선반공작소에 들어간 당위원회일군들은 그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을 기업소로 모시게 하였을 때 있었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는것으로써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빛내어나가자고 고무추동하였다.

신반공들은 밤을 새워가며 제기된 불포족과 필요한 부속품들을 가공하여 불포족의 만가등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련합기업소당위원회와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비료생산전투에 폭풍처럼 내달리도록 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한 결과 비료생산실적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었다.

당위원회일군들이 사무실을 전두현장으로 옮기고 로동자들과 고틀을 같이하며 생산정성화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나 온 기업소가 전두현장위기로 돌고돌고 생산실적은 추락할까 두려웠다.

가수정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물몰프가 고장났을 때 당기 위해 가공직장을 앞당겨서 달려간 사람들은 다름아닌 당위원회일군들이었다.

구장식료공장 일군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 특히 기업소의 지휘성원들인 지배인, 담배인, 기사장은 3위1체가 되어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인민생활향상대전의 발자취를 높이 올리는 우리 조국당 그 어디에 가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 목소리를 울려나오게 하였다.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당, 행정, 참모부서의 일군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 올리고있는 주장식료공장에서 깊은 감동속에 들을수 있었다.

사업실적이 높다는 군당위원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구장식료공장을 찾았을 때

합 좋은 말이였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책임기사 오홍국동무는 올해 당과작업반의 실비를 개조하고 기초식품생산공정과 유로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생산물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목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아름찬 일감이 아닌가고 물었더니 그는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 공장, 당, 행정정체일군들이 언제나 마음을 합쳐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간 문제가 없습니다. 》

지배인과 초급당비서가 앞장서달라고 책임기사가 기술지도를 끈기있게 해나가 공장일이 잘된다는 말은 어디서나 들을수 있었다.

현장을 돌아보는데 공장전대에 필요한 자재를 실어나르던 지배인 김세일동무가 들어왔다.

수고한다는 우리의 말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 제가 하는 일이야 초급당비서가 많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

그러면서 그는 초급당일군들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다. 올해공공사업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초급당비서는 원로기지를 위한 사업을 자기가 할 몫이라고 하면서 선뜻 맡아나섰다는 것이다. 10여명보다 되는 원로기지를 새로 개간하고 원로기지에 별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어려운 일감을 초급당비서가 맡아 본대끼며 해고나기

들이 그들에게 붉은넥타이를 매여주고 소년단회장을 맡아주었다.

조선소년단원의 영예를 지닌 학생들은 《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는 구호에 《 항상준비! 》라고 힘차게 화답하며 소년단원의 첫 인사를 하였다.

전쟁로병인 공화국영웅 리기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박사 박지민,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김성희가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모두가 아버지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지극체를 겸비한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강성대국의 앞날을 떼매고나갈 역군으로 준비할것을 당부하였다.

대회는 《 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준비 》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위대한 당의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하여주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다. 》

잊지 못할 주제 99 (2010)년 6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찾았을 때는 장군님께서 남흥가스화대 건설이 완공되어 주제비로 가 팡팡 쏟아내주시었다는 전제 인민들에게 만복이 넘쳐나는 강성대국의 승리의 날이 멀지 않다는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 그날의 숭고한 뜻 가슴깊이 새기고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은 나라의 대경사이라고 하시면서 새로 건설된 가스화공정에 대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치고 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형동맹을 맺어 더 많은 비료를 보내줄데 대한 전투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무엇보다 먼저 가스정직장, 출하직장, 마대직장, 청춘원, 로동자합숙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명도업적단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심도있게 짜고드는데 힘을 넣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에 대한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해설담화와 방송선전, 기동예선선동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

자들은 높은 비료생산실적으로 당의 명도업적을 빛내어나갈 드림있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비료생산을 계통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담한 전투목표를 내세운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은 직장을 하나씩 담당하여 비료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었다.

비료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하던 후진산직장에 들어간 당위원회의 책임비서 정경선동무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정성력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밀었다.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최신 과학기술의 토대위에 올려서 우자면 결정적으로 최첨단들의 열풍을 일으켜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설계하고 실천해야만 하였다.

당위원회 책임일군은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의 참뜻을 깊이 새겨주면서 생산공정에서

다. 가공직장 선반공작소에 들어간 당위원회일군들은 그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을 기업소로 모시게 하였을 때 있었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는것으로써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빛내어나가자고 고무추동하였다.

신반공들은 밤을 새워가며 제기된 불포족과 필요한 부속품들을 가공하여 불포족의 만가등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련합기업소당위원회와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비료생산전투에 폭풍처럼 내달리도록 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한 결과 비료생산실적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었다.

당위원회일군들이 사무실을 전두현장으로 옮기고 로동자들과 고틀을 같이하며 생산정성화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나 온 기업소가 전두현장위기로 돌고돌고 생산실적은 추락할까 두려웠다.

가수정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물몰프가 고장났을 때 당기 위해 가공직장을 앞당겨서 달려간 사람들은 다름아닌 당위원회일군들이었다.

구장식료공장 일군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 특히 기업소의 지휘성원들인 지배인, 담배인, 기사장은 3위1체가 되어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인민생활향상대전의 발자취를 높이 올리는 우리 조국당 그 어디에 가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 목소리를 울려나오게 하였다.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당, 행정, 참모부서의 일군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 올리고있는 주장식료공장에서 깊은 감동속에 들을수 있었다.

사업실적이 높다는 군당위원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구장식료공장을 찾았을 때

합 좋은 말이였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책임기사 오홍국동무는 올해 당과작업반의 실비를 개조하고 기초식품생산공정과 유로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생산물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목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아름찬 일감이 아닌가고 물었더니 그는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 공장, 당, 행정정체일군들이 언제나 마음을 합쳐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간 문제가 없습니다. 》

지배인과 초급당비서가 앞장서달라고 책임기사가 기술지도를 끈기있게 해나가 공장일이 잘된다는 말은 어디서나 들을수 있었다.

현장을 돌아보는데 공장전대에 필요한 자재를 실어나르던 지배인 김세일동무가 들어왔다.

수고한다는 우리의 말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 제가 하는 일이야 초급당비서가 많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

그러면서 그는 초급당일군들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다. 올해공공사업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초급당비서는 원로기지를 위한 사업을 자기가 할 몫이라고 하면서 선뜻 맡아나섰다는 것이다. 10여명보다 되는 원로기지를 새로 개간하고 원로기지에 별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어려운 일감을 초급당비서가 맡아 본대끼며 해고나기

위대한 당의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하여주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다. 》

잊지 못할 주제 99 (2010)년 6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찾았을 때는 장군님께서 남흥가스화대 건설이 완공되어 주제비로 가 팡팡 쏟아내주시었다는 전제 인민들에게 만복이 넘쳐나는 강성대국의 승리의 날이 멀지 않다는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 미루벌물길공사에서 공로있는 일군들과 돌격대원, 지원자들을 표창

개건설사업소 지배인 리경찬, 황해건설지건설사업소 직장장 박정국, 자강도당위원회 부부장 최길준, 위원군편의봉사관리소 로동자 리시환, 강원도지방건설전체관리국 운수기동대 운전사 한철호, 청진시 청양구역당위원회 부부장 최일현, 생기명광산 로동자 리명림,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국장 임광태, 단천시당위원회 부원 전광중, 량강도팜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지도원 리근식, 강서구역인민위원회 부부장 김충일, 농림수산부 부부장 김성복, 농업성 물길건설관리국 자재상사 사강 고운성, 농업성 물길건설기계화사업소 운전사 김명국, 농업성 판매설계연구소 설계가 최홍식, 평양시인쇄공장 로동자 안정남 등에게 수여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표창장이 김정숙군당위원회 부부장 정영도, 평양시 보통구역인민위원회 책임부원 최정환, 형제산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안자룡, 려포구역당위원회 실장 정용철, 평양관공기계공장 로동자 황영학, 중산광산 부원 오원민, 개천시당위원회의 부원 김태남, 장산광산 직장장 리판성, 영유광산 로동자 리전일, 평안남도당위원회의 부부장 배정수, 대동관개건설사업소 로동자 리봉남,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자재상사 파장 배종민, 구성공작기계공장 로동자 구성남, 풍년광산 기사 리광남, 황해남도파사관리국 책임부원 백락준, 송화군당위원회의 부원 김승철, 간성지건설지도국 간성지설계연구소 설계가 조용복, 송림향 수송대 공정원 김정철,

### 단 상

열마친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할수록 관철투쟁으로 들끓는 홍남가스화대상공사업에서 우리는 하나의 총적적인 사수를 목격하였다.

대형산소분리기 시운전준비를 다그치고있는 현장에서는 많은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었는데 그들은 저마음 속속이 달랐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낮익은 기술일군이 있는가하면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오랜 기술공도 있었다. 통성의 조림공, 평양에서는 연구사, 함흥의 설계가들이 추운 날씨도 아랑곳없이 대형전동기와 압축기, 가속에 붙어 지혜와 기술을 합쳐가는 모습을 보느라니 생각이 깊어졌다.

주인과 손님을 따로 갈라볼수 없는 현장에서 문득 《편만부, 편만단위를 위하여! 》라는 시대의 힘찬 부름이 심장에 파고드는것이였다. 얼마나 좋은 시대의 부름인가. 너도 나도 안겨살 강성대국 큰집을 건설하는데

### 환 마 음

는 정면 네일내일이 따르겠는 것 아닌가.

김철과 성강 아니 취재제의 어디서나 만나본 듯도 하나, 슬길도 하나, 심장도 하나인 그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눈앞에 어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오직 하나의 지향을 안고 사는 사람들, 일리와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하나로 합쳐진 그 뜨거운 마음에 하여 주체철이 나오고 비날론이 쏟아지며 다계단으로 변이 나는 거창한 현실이 펼쳐지는것이였다.

그렇다. 이제 여기 홍남평에서도 머지않아 비록폭포가 쏟아질것이다.

대고조의 승리를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선 조선의 이 정성,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혼연일체의 위력은 반드시 강성대국의 새 아침을 펼쳐것이며 우리는 앞으로는 당을 따르는 한마음으로 기적과 위훈을 펼쳐것이다.

본사기자 주 창선

### 전 력 생 산 1 . 4 배 장 성

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전력생산은 1.4배로 장성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홍추청년 1호, 2호발전소, 장강군 장강2호발전소, 화평군의 부남청년발전소와 근민발전소, 만포시 연화발전소를 비롯한 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은 겨울철 조건에서 겨울철 전력생산량도 증가하고 지방공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있다.

### 가 장 도 안 의 중 소 형 발 전 소 들 에 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홍추청년 1호, 2호발전소에서는 갈수조건에 맞게 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운영시간표를 짜놓고 전력생산자들이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장강군에서 북천에 건설한 장강2호, 5호발전소를 비롯한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전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만포시에서는 연화발전소의 1호발전기를 만부하로 돌려



힘있는 경제선으로 강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김정명적음



#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 2.16 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2.16 경축 만수대에 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1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환희와 기쁨이 공연장소에 차넘치고 있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꾼들, 로력혁신자들, 평양시대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해외동포측화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

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공연을 보았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판단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혼성 2중창과 합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 2중창 《정일봉의 봄맞이》, 무용 《2월의 서리꽃》, 여성 6중창 《만복의 문 열리네》, 여성독창 《혁신앞으로》, 남성중창 《강성대국이 보인다》, 합창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백두의 당력과 배짱으로 선군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여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펼쳐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렸다.

현지지도강령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강성번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질세워이 애국헌신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새겨주는 종무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민족의 대운을 안아온 력사의 2월이 있어 강성대국의 승리의 봄이 있음을 격조높이 구가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보다 휘황찬란한 선군조선의 폐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었다.

공연은 경에 하는 김정일동지께 다함없는 축원을 드리며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따라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려갈 천만군민의 굳은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 2.16 경축 재일조선인 예술단 초대 공연 진행

2.16 경축 재일조선인 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매혹과 춤》이 16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인민무력부장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양건동지, 최봉태동지, 문경덕동지와 강석주, 로두침, 진하철내각부총리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에 초대되었다.

배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총지부를 비롯한 재일동포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출연자들은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성의껏 준비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여성 2중창 《매혹과 춤》, 혼성중창 《조선의 행운》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선군혁명명도로 사회주의

의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였다.

민족적정서가 넘쳐나는 여성 3중창 《양산도》, 독무 《영고초》를 비롯한 종목들도 무

대에 펼쳐졌다.

남성 독창과 여성 2중창 《공격전이다》, 남성독창 《총련의 창창한 미래를 향하여》, 장새남독무 《강성부흥아리랑》은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조국인민들과 승결을 같이하며 애국애족의 한길로 역세게 나아가려는 재일동포들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공연은 혼성중창 《총련부흥아리랑》으로 끝났다.

재일조선인 예술단 공연이 16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환희와 기쁨이 공연장소에 차넘치고 있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꾼들, 로력혁신자들, 평양시대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해외동포측화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



## 청년 중앙 예술 선전대 경축 공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한 청년중앙예술 선전대 경축공연이 1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실화와 노래 《경축합니다》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중창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혼성 2중창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 대화시 《우리

장군님 사진첩》, 여성독창 《나의 청춘 조국에 바쳐가리》, 무용 《내 이름 묻지 마세요》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하며 불변불휴의 정력적인 명도로 강성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축원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에게 대고격전장에서 신봉대, 검격대의 영예를 펼쳐가고있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기개와 혁명적정신이 차넘치는 공연종목

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시와 합창 《장군님께 영광을》로 끝난 공연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휘날리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창조자가 될 청년전위들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 청년 학생들의 경축 무도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16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장건기념탑, 4.25 문화회관,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평양의 무도회장은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신군혁명명도따라 강성대국 건설에서 위훈을 펼쳐가는 자람을 안고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기쁨과 환희로 설

《조선의 행운》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도회들이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도력, 고매한 품모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크나 큰 영광과 행복을 아름다운 춤물동예에 담아 펼쳤다.

《그이의 리상》,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부르자》, 《변이 나는 내 나라》 등의 노래선율을 맞추어 춤물동예를 일으켜가는 참가자들의 열광마다에는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빛내시며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어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해외 동포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16일 2월의 명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해외동포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여기에는 재일

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축하단, 재미동포전국연합회축하단, 제카나다조선인연합회축하단, 제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해외동포들은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으며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 2월명절의 아침에 펼쳐진 백두의 신비경

경사스러운 2월명절의 아침 백두산덕에 신기한 자연현상이 펼쳐졌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와 백두산밀영기상관측소가 관측한 데 의하면 이 일대에서는 12일부터 평년보다 온화한 기온이 지속되었다.

16일 새벽부터 하늘이 류달리 맑게 개인 백두산에 초당 25m이상의 세찬 바람이 휘몰

아치고 얼음이 갈라져서 소리가 천지호반을 뒤흔들었다.

새날이 밝아오기 무렵 날씨는 신기할만큼 또다시 잠잠해진 속에 장엄한 백두산의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찬란한 태양이 온 누리를 밝히며 솟아오르고 백두산밀영지구가 그윽한 봄의 정서속에 잠긴듯 활활한 풍치를 펼쳤다.

정일봉상공에는 아침 9시

30분경부터 한시강동도 류달리 크고 밝은 해무리현상이 나타났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과 백두산밀영기상관측소의 일꾼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에 펼쳐진 경치를 보며 백두의 선군명장을 높이 모시고 강성대국의 새봄을 맞이해가자고 인민을 혁명의 성산이 축복해주는것만 같다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은 나라의 각계 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2월의 명절을 맞이한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과 경모의 정,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었다.

어버이장군님께 축원의 인사를 마음속으로 드리며 제 15차 김정일화축전장과 각 도의 김정일화전시회장을 찾는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호름이 그칠새 없었다.

그들은 만민의 끝없는 흥모심에 떠날래 아름답게 피어난 불멸의 꽃들을 보면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류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였다.

수도 평양과 강계, 함흥, 청진, 원산시, 대흥단, 평원, 강령군 등지의 극장, 회관들에서는 예술공연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출연자들은 시와 합창 불멸

## 2월의 명절을 각지에서 뜻깊게 경축

의 혁명승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노래와 춤 《정일봉의 봄맞이》, 실화와 합창 《승리의 길》, 합창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와 여러 종목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도력, 숭고한 품모를 높이 칭송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에 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총칭하게 받들어 조국의 통일번영을 이룩해갈 우리 인민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더 높이 더 빨리》, 《전선에서 만나자》, 《변영하라 조국여어》 등의 노래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새해의 대고조진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을 간직하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면서 예술소공공연으로 명절을 의의있게 보내었다.

배우, 장기, 율비 등 체육 유희오락경기들이 2.8비날로 열렸다.

기업소, 남포청년화학련합기업소, 안주지구관판련합기업소, 안주 신의주화장품공장, 해산청년광산을 비롯한 단위들에서 벌어졌다.

뜻깊은 명절을 환희와 기쁨

속에 경축하는 각계 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대양》 제7부 《선군령장의 위대한 동지애》가 나왔다

조선기록과학화촬영소에서는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대양》 제7부 《선군령장의 위대한 동지애》를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동지애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동지애로 끝까지 완성실현의 시기를 지니시고 건설갈는 사랑과 믿음으로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수록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혁

명투사들과 혁명의 년대기마다 당의 선군명도를 총칭하게 받들으신 전사들을 끝없이 이기고 사랑하시며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는데 대하여 영화는 감명깊은 화폭들로 보여주고있다.

천여어사사랑으로 인민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협준한 산발과 세한 파도를 넘으시며 최전선의 오성산, 판문점초소와 초도의 병사들을 찾으신 이야기들을 비롯하여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전하는 력사적사실들이 영화에 편집되어있다.

불세출의 선군명장의 품속에서 자라난 무적의 용사들과 장엄한 열병대의 모습은 담은 장면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 총공격전진이 전개에 차넘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동지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16일 인민문화회관에서 있었다.

연회에는 해외동포측화단들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와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서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양건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온 해외동포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우리 모두가 가슴마다에는 불멸의 아들로 간수하시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중국국가주석에게 신임장 봉정

호금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 지체부 중국주석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4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호금도주석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호금도주석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동반이고 두 나라 인민은 오래고도 깊은 관계를 맺고있다고 하면

서 로세대명도자님께서 마련하고 계시는 친선적인 중조친선은 세 세기에 걸쳐와서도 변함없이 공고발전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중국을 거듭 방문하신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그는 현재에 김정일동지와 두차례나 상봉하고 중요한 문제들에서 특별한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것은 두 나라 관계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최근 두 나라사이에서 경제무역관계가 발전하고 래황과 여

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가 활발해지고있으며 중대한 국제문제들에서 의사소통이 강화되고있다.

중국당과 정부는 두 나라 관계가 훌륭히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한다.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선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중국측은 조선측과 전략적의 사소통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호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제 15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호모심이 차넘치고있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조국밖 어디 서나 세인을 놀래우는 사면과 기적들이 다채로우니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를 총칭하게 받들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재일본조선인총지부 단장인 배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뜻깊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전제 해외동포들의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록한 행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 강성대국건설위업에 바쳐진 헌신과 로고의 한생이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 한 명도덕에 우리 조국이 신심 높이는 2012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령군길에 보복을 맞으며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자기의 도로와 본분을 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참관을 마치고 그들은 감사 례에 글을 남겼다.

배 반 조주 켈남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국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주영성 자강도당위원회 책임 비서, 최기룡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이 야영 생활을 축하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이러 트로들이 있었다.

이러 야영생활의 분별행진과 야영소교직원들의 예술소품공연이 있었다.

주영성 자강도당위원회 책임 비서, 최기룡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이 야영 생활을 축하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해외 동포들을 위한 연회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16일 인민문화회관에서 있었다.

연회에는 해외동포측화단들을 비롯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와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서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양건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온 해외동포들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우리 모두가 가슴마다에는 불멸의 아들로 간수하시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호모심이 차넘치고있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조국밖 어디 서나 세인을 놀래우는 사면과 기적들이 다채로우니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해외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를 총칭하게 받들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재일본조선인총지부 단장인 배진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뜻깊은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전제 해외동포들의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록한 행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 강성대국건설위업에 바쳐진 헌신과 로고의 한생이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 한 명도덕에 우리 조국이 신심 높이는 2012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령군길에 보복을 맞으며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자기의 도로와 본분을 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참관을 마치고 그들은 감사 례에 글을 남겼다.

배 반 조주 켈남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국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주영성 자강도당위원회 책임 비서, 최기룡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이 야영 생활을 축하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에 넘치는 신심과 랑만, 행복과 보람

## 정월대보름날과 더불어 간절해지는 소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배의 사회주의입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2월 16일을 뜻깊게 보내고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는 이 땅에 편이여 정월대보름날이 왔다.

에로부터 우리 인민은 정월대보름날이면 평안같이 동근달을 바라보며 지나온 한해를 추억하고 새해의 행복찬 생활과 풍년을 기원하였으며 여러가지 민속놀이로 다채로운 명절맞이 풍경을 펼치었다. 바깥당기와 연꽃우기, 꿩놀이로 마을들은 흥성거리었고 오곡밭과 약밭, 마른나물음식을 비롯한 민족음식을 서로 나누며 명절의 한바탕을 즐기었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은 선조시대에 와서 보다 짙은 민족적정서와 향취를 안겨주는 뜻깊은 명절로 되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 한해를 선군장정의 길에 계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속 전통을 잘 살리고 민족성을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과 관련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정월대보름을 비롯한 민속명절들을 더 뜻깊게 쇠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선군명령의 숭고한 뜻에, 민족애에 떠받들려 이 땅우에 활짝 꽃피는 주체성과 민족성의 화원속에서 오늘 우리 인민은 조신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에 넘쳐 복되고 값 높은 생활을 마음껏 향유해가고 있다.

하기에 해마다 떠오르는 정월대보름날의 동근달을 결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대할수 없는 우리 인민이다.

조국청사진이 길이 아로새겨질 가슴찬 변혁의 시기에 맞이 한것으로 하여 더욱더 뜻깊은

올해의 정월대보름날이다.

정월대보름날 두둥실 떠오르는 동근달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민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소원은 정월 무엇인가.

지난날에는 기적해야 한 가정과 마을의 행복에 대한 소박한 소원이 담긴 동근 보름달에 지금은 이 세상 가장 크고 절절한 인민의 념원과 희망이 가득 담긴군 한다.

조국의 안녕지켜 초병들이 한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고지와 전초를,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구쳐오르는 최첨단전술의 연계와 기적과 혁신의 승결 드높은 공상들의 구내길, 드넓은 전야와 거둬들...  
달빛이 비쳐가는 초소와 일터, 거리와 마을은 맑아도 해마다 정월대보름날에 담은 인민의 소원과 념원은 하나이다.  
어디에 계시니까 그리운 장군님!  
—달아, 더 밝게 비쳐다오.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전진길,

현지지도의 길을!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달밤을 안겨주시고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이여 선군장정의 길에서 우리 장군님 부디 안녕하시기를 바라는 뜨겁고도 간절한 마음이었다.

가는 달빛속에 장군님 타고 가시는 야전차의 불빛이 비껴있고 사연깊은 전진길, 현지지도의 그 밤과 밤들이 하늘까지 울려오르는 것이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월대보름명절의 밤이 깊어갈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잠 못 들곤 하였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전진길에 계시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잠 못 들곤 하였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전진길에 계시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잠 못 들곤 하였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전진길에 계시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잠 못 들곤 하였다.

조국의 아름다운 시대정서가 아니던가.

정월대보름날이면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들이 이채롭게 펼쳐지는 명절맞이 풍경은 또 일어나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아주고 랑만과 희열을 더해준다.

참으로 내 조국의 정월대보름날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며 따르는 천만민민의 뜨거운 마음이 한껏 어리어 그리도 밝게 빛나곤 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총동력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하나의 민족명절에도 령도자를 그리는 절절한 마음, 조국의 부강번영을 바라는 고결한 마음을 담으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더 높이 받들어모실 맹세로,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맹세로,  
본사기자 윤지혜

## 철도역구내의 아침

평양역시계탑의 종소리가 아침공기를 헤가리며 은은히 울려 퍼진다. 그와 동시에 평양 조차장역에서는 열차들이 가속속을 가득 채웠다.

이때 앞쪽에서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기만사 최성남동무가 운행길에서 돌아오며 후련하게 울리는 기적소리가였다.

《저 친구 오늘도 많은 짐을 더 나르네요.》

김명선동무도 응글은 기적소리로 화답했다. 이제 누가 더 많은 짐을 나르는가 두고보자는 경쟁심도 함께 담았다.

김명선동무는 자기가 끌고가는 열 화차들을 돌아보았다. 팔이 보이지가 않는다. 마음이 초췌했다. 그가 부르는 수자에 눈이 동그래지며 의미있는 미소를 짓던 열차사령의 얼굴도 떠올랐다.

바로 곁에서 또 다른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붉은기-5105》호가 객차들을 끌고 속도를 내어 미끄러져가고있다.

군대에 나간 두 아들이 초소근무의 한밤에 기적소리를 들으면 꼭 아버지의 당부처럼 생각되어 흥분을 더 억세게 틀어잡게 된다고 편지마다 다정다감하게 보내군 한다며 언제 한번 혁신의 앞자리를 양보할줄 모르는

책임기만사 김철일동무가 운행길을 달려가는것이였다.

김명선동무가 뜻있는 눈길을 보내는데 운전지휘원이 발차를 알리는 신호기발을 힘있게 흔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열차차장이 신호기발을 흔드는 모습도 보인다.

《붉은기-6017》호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

아침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이 질풍같이 달려가는 기판차를 향해 손짓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김명선동무의 마음속에 이룰수 없는 걱정과 기판사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차넘친다. 이것이 기판사의 멋인것이다.

깨드우로 달려가는 열차의 단조로운 음향의 수도의 아침 하늘가로 메아리쳐간다. 그것은 나라의 동맥이 뛰는 소리, 인민경제의 생명선이 달려가는 소리이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 대진군의 계도를 따라 혁신의 열마루로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으로 잠들 줄 모르는 철도의 또 하루가 시작된다.

바라볼수록, 새겨볼수록 장쾌하고 아름다운 철도역구내의 아침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 인민의 사랑속에

봉화비누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향상시책에 대한 당의 높은 뜻을 앞장에서 꽃피워가려는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이 제물마다 깃들여있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기술개진표를 높이 세우고 제품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이룩하게 벌였다.

종업원이 수신편법에 안되는 공장에서 생산을 밀고나가면서 설비들의 기술개진을 동시에 진행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난관이 막아나설 때마다 그들은 우를 해마다 손을 내밀거나 주저없이 우는소리를 하지 않았다.

신촌애, 김영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대중속에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깊이 심어주며 그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적극 발휘하였다.

공장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공구전시회는 종업원들의 공장을 불러일으켰다.

지승천동무를 비롯한 로동자, 기술자들을 서로 돕고 이끌어 줄수 있는 새 기술혁신단, 창의고인을 생산에 받아들여주고 부린 환경, 온건사 김정성동무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비누원료를 제때에 운반하기 위한 수송전투를 즐기치게 벌였다.

집단의 양양된 열의속에 공장에서서는 만년보이상의 예비부속품을 그르히 갖추어놓고 기

## 혁신의 비결

사리원대성라울공장 피복 1직장 제5작업반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참다운 인간관계, 인간도덕의 기초이며 자기자신보다 남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은 인간의 고상한 도덕의인입니다.》

우리가 혁신작업반인 2중 3대혁명붉은기 사리원대성라울공장 피복 1직장 제5작업반을 찾아갔을 때였다.

우리와 만난 작업반장 최금주동무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우리를 부르내었다.

한시간정도 지나서야 우리는 그와 마주앉을수 있었다.

최금주동무의 얼굴은 땀에 젖어있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었더니 최금주동무는 미소를 지었다.

《합숙성인 우리 작업반 직속 화동무가 아침부터 일이 나더러 입맛까지 잃었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옥화동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합숙에 들어 그가 수저를 들고는 또 오느라고 늦었다고 하며 그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그의 눈가에 어머니의 눈처럼 따뜻한 빛이 감돌고있다.

본사기자 김호현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이한 수도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 행복의 웃음이 넘쳐난다. —평양시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구성이 남동 농장의 자랑 녀성초급일군들

가면서 작업반 협동동무 제2 작업반 반장 허옥, 제7작업반 반장 김명옥, 제10작업반 반장 허경실동무들을 두고 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허옥동무는 오랜 기간 작업반 반장직임을 하면서 작업반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해마다 알곡 생산계획을 수행하고있다.

본사기자

##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자동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참관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우에기 마사하루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김일성주의연구소 사무국대표단이 16일 제15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과 뜨거운 지어에 떠받들려 활짝 피어 난 김정일화축전장을 환영경을 이룬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위대한 김정일총비서의 탄생일을 열렬히 축하한

## 일본 김일성주의연구소 사무국대표단

제15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이론 조신의 현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

##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부의장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총련중앙고문들, 재일본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 총련중앙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 위원장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동포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위원장책임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전체 총련일군들과 해외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찬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는 위대한 사색과 탐구, 비상한 정력과 강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하신 백전백승의 력사라고 강조하

## 총련중앙 사진 전시회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고매한 인민적품도, 제일동포들에게 배풀어주시는 친애이사랑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 아래 대제고간적지, 대동강과 수송함정장이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조국방위에 펼쳐진 전연의 새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어있었다.

허중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부의장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총련중앙 고문들, 중앙단체, 사업체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 위원장들, 청년학생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사진들을 보면서 선군조선의 존엄과 지위를 회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재일본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 일본 김일성주의연구소 사무국대표단

제15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이론 조신의 현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

## 총련중앙 사진 전시회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고매한 인민적품도, 제일동포들에게 배풀어주시는 친애이사랑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 아래 대제고간적지, 대동강과 수송함정장이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조국방위에 펼쳐진 전연의 새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어있었다.

허중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부의장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총련중앙 고문들, 중앙단체, 사업체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 위원장들, 청년학생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사진들을 보면서 선군조선의 존엄과 지위를 회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재일본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 재일동포들의 예술공연

2.16경축 제일동포들의 예술공연이 15일 도교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중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부의장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총련중앙 고문들, 중앙상임위원회 위원들, 재일본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 중앙단체, 사업체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부 위원장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는 녀성중창 《장군님 따르는 마음》, 《미래를 안고 살자》, 무용 《비단실



#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영광과 긍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와 더불어 밝아온 첫해의 장엄한 진군길 위에서 2월의 명절을 맞이하였다.

백두의 천출위인을 우러르는 만민 의 숭가와 환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격동적인 이 시각 남녘겨레의 가슴가슴도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고있다.

뜨겁게 경모하고 칭송하는 목소리가 남녘의 하늘가에 울려퍼이 메아리 친다.

본사기자 김향미

## 「 선군지지옹호의 거세찬 대하 」

### 정의의 수호자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음과 신뢰의 정이 어린 글들이 인터넷홈페이지에 차넘치는 속에 범정학원 남측본부는 장군님을 우러러마르는 뜨거운 마음들을 담아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선군정치에 의해 재생될수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안아온 6.15공동선언에 의하여 남과 북에는 조국통일의 열풍이 불어치게 되었다. 선군정치는 실질적으로 대미항전에서 우리 민족이 편견편승하는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그 위력을 세계에 떨치고있다. 미국을 타승하는 우리 민족의 기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국애족의 드높은 신념, 강철의 의지에서 창조되었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곧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세계정치무대에 당당하고 막강한 민족으로 등장하였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로 통일될 부강한 대미를 기약하게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시아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다. ...」

## 2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위인칭송의 메아리

얼얼한 대지에 봄을 부르며 2월이 왔다. 백두산의 천출위인을 우러르는 만민의 환희성이 온 우주를 진감하는 이 시각 온 겨레의 마음과 마음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달린다.

경사롭고 희망찬 2월의 봄명절을 맞이한 남녘겨레들은 백두산을 우러리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민족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리고있다.

「기다리고 기다린 2월이 왔습니다. 자나깨나 그리워 경모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여! 경사스러운 2월의 이 아침 우리 이남민중은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계시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언제나 찬란합니다.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달려가 남녘겨레들, 티없이 맑고 절절한 그 그리움은 남녘방 가는 곳마다에 다함없는 청송의 바다를 펼쳐놓고있다.

서울의 지식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 아시아말로 인류역사에 전무후무한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대성인이시라고 격조 높게 찬탄하며 다도해의 너인들은 장군님의 안면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은실금실로 축기어 수놓았다. 부산의 시민들은 절세의 위인의 기상이 어떤 절정의 숭엄함에 대한 격정을 터놓았고 호남의 꽃재배업자들은 정성껏 피운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보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찬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웠다.

하디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남녘겨레가 심장으로 리치는 품모와 칭송의 목소리가 그토록 절절했건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여기에 남조선의 한 작가의 심장의 토로가 있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계시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언제나 찬란합니다.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 불타는 그림이 피운 꽃

꽃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고유한 정서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꽃에 가장 순결한 넋을 바치며 꽃에 대한 희망과 넋을 쏟는것은 인간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꽃잎을 바라보면 불타는 백두의 노을이 그대로 물든듯하고 푸르스름한 그 일세를 바라보면 백두산의 정기와 기백이 꽃잎에 흘러넘치는 태양의 꽃 김정일화, 자나깨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는 남녘겨레들은 가슴속에 차넘치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불태우며 피워가고있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가게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품은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 대 번영과 통일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부디 부디 건강하십시오!》

##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인 맹진주 부총리 겸 외교부장은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친선적인 조선을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친선적인 조선을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친선적인 조선을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친선적인 조선을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중앙아프리카 대통령 재선

프랑수아 보지제 앙구본다가 중앙아프리카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었다.

##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 사회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10월 미 노동통계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5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나라에서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38만 3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 파업

프랑스의 각지에서 10일 교원들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 중국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파업은 수많은 교원들이 참가하였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10월 미 노동통계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5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나라에서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38만 3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